

제18062호 2판
2008년 5월 17일 토요일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51-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팩스 222-8005>
편집부 2200-629 광고이메일국
정치부 2200-616 <팩스 227-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1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문화홍보국 2200-541
사회2부 2200-619 <팩스 222-0195>
<팩스 227-0118> 독자서비스국
문화생활부 2200-626 <팩스 227-551>
어문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진부 2200-690 02-773-9331
조선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1)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다

톱스타들 안방극장 속속 컴백

반감구나, 손예진 ▶

톱스타들이 대거 안방극장을 찾고 있다. 새롭게 컴백하는 이들은 대부분 막강한 흥행 파워를 자랑하는 배우들로 드라마 시청률 경쟁 또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퓨전 사극, 클래식 음악 드라마, 여성 대통령까지 소재도 다양하다. '작업의 정석' '무방비 도시' 등 매 작품마다 새로운 변신을 시도했던 손예진은 지난 14일부터 방송사 보도국 사회부 사건 기자로 가장 먼저 안방을 찾았다. 극중 손예진은 머리도 못 감고 사건 현장을 누비는 등 사건 기자의 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 '신화'의 리더인 문정혁(예리)은 퓨전 사극 '최강칠우'(KBS)에서 자객 '칠우' 역할을 맡아 인기몰이에 나선다. 판타지 무협 사극 '최강칠우'는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강변칠우' 사건을 드라마로 각색한 작품으로 첫 사극에 도전하는 문정혁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21일 첫 방송 되는 '일지매'(SBS)에는 영화 '왕의 남자'로 사랑을 받았던 이준기가 주인공 일지매 역을 맡아 이영아, 한효주 등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드라마는 개혁 추구 세력과 보수세력 사이에서 신분을 감추고 서민들을 위해 평화를 펼치는 협력 일지매의 이야기를 다룬다.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MBC) 이후 3년 만에 얼굴을 내미는 김선아는 오는 6월 방송될 '밤이면 밤마다'(MBC)에서 문화재청에서 근무하는 문화재 단속반원 '허

◀ 기다렸다, 문근영

초화'역을 맡았다. 김선아의 상대역은 고미술학자로 출연하는 이동건이다.

고현정은 박인권 원작 만화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드라마 '대물'(SBS)에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자 대통령으로 출연한다. 또 권상우는 화려한 춤 솜씨와 여자 다루는 기술을 겸비한 제비 '하류'역을 맡았다. 오는 8월 방영을 앞두고 이들은 다이어트와 춤 연습을 비롯해 본격적인 대본 연습에 들어갔다.

'국민 여동생' 문근영은 사극 '바람의 화원'(SBS)으로 5년 만에 안방극장을 찾는다. '바람의 화원'은 조선 후기 화단의 거장으로 꼽히는 신윤복과 김홍도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문근영은 여주인공을 숨기고 남자로 사는 조선 시대 전제화가 신윤복을, 지난해 '편의 전쟁'으로 사랑을 받았던 박신양은 김홍도 역으로 맡았다.

지난해 6월 개봉된 영화 '황진이'의 흥행부진으로 차기



작을 신중히 선택한 송해교는 현빈과 함께 오는 11월 표민수PD와 노회경 작가의 합작품인 '그들이 사는 세상'(KBS)으로 안방에 돌아온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송가쁘게 돌아가는 드라마 제작현장을 다룬 작품으로 송해교와 현빈은 드라마 PD로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불멸의 이순신' '하얀거탑'의 김명민은 오는 11월 방송될 클래식 음악 드라마인 '베토벤 바이러스'에 출연한다. 한국판 '노다메 칸타빌레'가 될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김명민은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 역할을 맡는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도쿄, 여우비' 김사랑 "마지막 장면 너무 슬퍼 눈물 펑펑"

여배우에게 멜로 연기는 영원한 '로망'이다. 배우 김사랑(30)도 예외는 아니다. 6월2일부터 SBS TV를 통해 방송되는 한일합작 4부작 드라마 '도쿄, 여우비'(극본 김진희, 연출 이준형)의 여주인공을 맡은 김사랑은 일본에서 벚꽃이 만발하는 계절에 사랑 이야기기를 찍었다.

"지난해 5~6월 두 달 동안 촬영했는데 일본의 경치 좋은 곳만 다녔기 때문인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김사랑과 김태우가 주연을 맡은 '도쿄, 여우비'는 도쿄로 CF 촬영을 갔다가 일탈한 신인 여배우 수진과 초밥 요리사 현수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멜로 드라마. 오타니 료헤이와 오쿠다 에리카, 야마모토 가쿠 등의 일본 배우들과 일본 스태프가 함께 했다.

"합작 드라마를 처음 해봤는데 일본 올 로케이션이라는 점과 멜로 드라마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외국 스태프와 일하는 게 어떤 것일까 궁금했고, 벚꽃을 배경으로 진행한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궁금했습니다."

그는 극중 간단한 일본어 대사도 소화했다.

'도쿄, 여우비'는 7년의 시간을 두고 두 주인공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린다. 영화 '로마의 휴일'이나 '노팅힐'과 어느 정도 겹쳐지는 이 드라마는 그러나 해피엔딩은 아니다. "마지막 장면을 찍을 때는 정말 너무 슬퍼서 막 울었다"는 김사랑은 "하지만 현실적인 결말이라 생각하고 그게 더 여운이 남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5 BOX OFFICE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아이언맨	74만7천402	280만1천761
2	스피드 레이스	36만6천924	42만4천653
3	테이큰	18만1천729	173만6천438
4	포비든 킹덤: 전설의 마스터를 찾아서	9만6천555	111만8천454
5	호튼	8만8천538	52만8천509
6	비스트 보이즈	8만7천268	61만4천591
7	프라이스리스	5만3천606	6만2천154
8	가부리지기	2만9천355	24만8천344
9	서울이 보이냐	2만2천622	2만17천333
10	명탐정 코난: 베이커가의 명령	2만2천214	9만3천922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순위	제목	방송국/시청률
1	이산	MBC 30.5
2	조강지처 클럽	SBS 28.9
3	엄마가 뽀뽀했다	KBS2 24.7
4	은애어	SBS 24.5
5	너는 내 운명	KBS1 22.5
6	행복합니다	SBS 20.1
7	이현동 마님	MBC 20.0
8	해피투게더	KBS2 18.2
9	무한도전	MBC 17.2
10	대왕세종	KBS2 15.7

(자료제공:TNS리서치)

순위	제목	장르
1	람보4:리스트 블러드	액션
2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드라마
3	황금 나침반	판타지
4	나는 전설이다	스릴러
5	워	액션
6	명장	액션
7	무방비도시	액션
8	베오울프	액션
9	미스트	SF
10	어거스트 러쉬	드라마

(자료제공:비디오리더)

순위	제목	가수
1	서커스	MC 몽
2	One	에픽 하이
3	우산	에픽 하이
4	리리라	SG 워너비
5	화분	일렉스
6	가슴으로 외쳐	먼데이키즈
7	추억 속의 그대	이승기
8	발자국	먼데이키즈
9	미안해요	거미
10	아이처럼	김동률

(자료제공:멜론)

SONY BRAVIA

고객감사 大 축제

최고의 품질로 승부하는 Full HD TV BRAVIA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대부분의 HD TV는 해상도만 높여주는 반면, HDR-SR12는 1,920x1,080 해상도 대비 1.5배 더 많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HDR-SR12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HDR-SR12

120Hz / 48Hz

국제외식산업(주)

스카이팜 OPEN

새롭게 단정하였습니다

☑️ 대우 호텔사 | 출장비행
☑️ 호텔, 교회 | 도시락
☑️ 호텔 | 이력서

예약상담 062-262-2278